

‘현대불교 입문’

1. 인간의 종교로서의 불교

불교의 시작은 인간 탐구에서부터

〈현대불교 입문〉은 마즈다니 후미오(増谷文雄)가 저술한 책으로 불교로부터 어떠한 삶의 지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조명하면서 인간 심층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한국에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이 1984년 번역해 소개했다. 본지는 〈현대 불교 입문〉의 요지를 소개, 바른 신행의 길을 제시하려 한다. <편집자주>



부처님 팔상성도 중 출가를 묘사한 '유승출가상'. 사진은 양산 통도사 영산전에 그려져 있는 도상이다.

불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해

지나온 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이름 높은 스님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하나는 어떻게 하여 불조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인가이며 두번째는 깨달음을 자기의 시대와 상황에 맞춰가며 구현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훌륭한 노력이 영위될 때, 불교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갖고 다시 소생하며, 사람들의 생활 속에 훌륭한 힘을 발휘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불교의 새로운 이해와 파악의 방법에 관해서 생각해 오던 바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물론 그것은, 낡은 체계(體系)를 새로운 언어로써 장식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것을 쓰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법(法)을 찾으며 또 기(機)를 묻는 것이다. 기를 묻는다는 것은 말을 달리하면 인간의 존재자체를 찾는다는 의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언제나 인간 문제를 탐구한 분이였다. 부처님 자신의 구도에 있어서나 또 성도(成道)후의 설법전도에 있어서도 언제나 그러했다. 나는 그 분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탐구의 길'에서부터 글을 시작하려 한다. 그것은 또한 옛 성현들이 견뎌온 방법을 따르는 것이며 그때 불교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불러 일으키면서 우리 생활의 지도원리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출발점도 인간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도는 생노병사를 걸머진 인간의 유한성(有限性)의 자각에서 비롯됐다. 왕자 시다르타 시절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지만 유한성을 자각하면서 부유나 지위의 고귀도, 아무런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그 해결을 얻기 위해서 출가 사문의 생활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결국 보다 또한 인간적인 문제에서 출발해 이 길에 들어간 분임에 틀림없음을 뜻하고 있다고 본다.

전도(傳道)를 시작할 무렵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의 초점은 '자신'을 찾는 일이었다. 전도 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새로 입문한 많은 비구들을 거느리고 상두산에 올라 '치연(熾然)'이라는 유명한 설법을 행하셨다. 유럽의 불교학자는 이것을 가끔 예수의 '산상 수훈(垂訓)'과 비교하고 있다. 그 설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서 시작되고 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치연하게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모두 불타고 있다. 눈으로 보아서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모두 치연하게 불타

부처님, 인간존재의 유한성 자각 초기 설법 초점은 '자기 성찰' 더 높은 존재로 눈돌리게 해 근현대 사상 시류 '자기 탐구' '불교야말로 현대흐름 부합'

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 것일까? 탐욕의 불, 노여움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서 치연하게 불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먼저 듣는 자인 인간의 존재를 지적하며 거기에서 출발해 그들을 인도해 더 높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대기설법'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의 교화설법의 구조는 언제나 이러한 것이었다. 어느 때는 듣는 이의 기를 살피서, 거기에 맞도록 설법했다. 또 어느 때는 듣는 이의 능력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성찰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어느 것에 있어서건 부처님 교화의 출발점은 늘

인간 성찰에 있었던 것이다.

현대의 사상적 상황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상이나 학문적 경향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인간의 자기 음미(吟味)의 영위가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진리의 추구에 몸을 바치며 실제(實在)의 파악에 몰두해 왔던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 '생의 철학'이 그 명성을 드높이며 '실용주의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며 '실용주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철학적 문제의 전환이다. 문제는 이제 존재 일반에서 한바퀴 돌아 인간으로 전환했다. '진리의 용기'가 버려지고 '자기의 탐구'가 시작된 것이다.

문학의 세계에서 그와 같은 경향이 현저하게 보이는 듯 하다. 거기에서는 벌써 영웅이나 낭만이나 과거를 하는 것은 즐겨 다루지 않는 화제가 돼 버렸다. 많은 뛰어난 문학자들이 피나는 씨름을 하고 있는 주제는 인간성이다.

특히 한계상황에 놓여진 인간성이나,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는 의식 밑의 자기의 움직임 같은 것을 탐구하며 추구해, 적절한 표현에까지 가져 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문학의 중요한 노력이다.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보면 얼굴을 돌리고 싶거나 심히 불쾌한 것도 있다. 그러나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거기에까지 추구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듯 하다.

그러한 현대의 사상적 상황 속에서, 지금 세삼스레 불교를 뒤돌아보면 이 가르침야말로 가장 철저한 인간의 종교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많은 설법 속에는, 본래 마음 자리를 찾기 위한 설법

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후의 경문 가운데도 훌륭한 인간탐구의 여러 가지 노력의 자취가 담겨있다. 그 가운데는, 세계의 정신사에 있어서 가장 빠른 심층심리의 추구라는 훌륭한 성과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고승들의 행적 속에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진지한 자기 탐구의 자취가 있다. 거기에 우리들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철저한 인간탐구의 종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 우리들은 불교 본래의 존재자 체로서나, 또 현대의 사상적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나, 불교의 길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저자 마즈다니 후미오

1902년 출생. 동경대학 종교학과 졸업. 동경대학 강사, 동경 외국어대학 수료, 대정대학교수. 중요한 저서로는 동양사상의 형성, 불타(佛陀), 불교백화(佛敎百話),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비교 연구, 근본불교, 아함경전(4권)의 다수.

옮긴이 정병조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나와 동국대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동국대 문과대학 윤리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1984년부터 3년간 인도 네루대 객원교수, 1992년 동국대 교무처장, 1997년 동국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을 지냈고 2007년부터는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11년 금강대 제4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음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사) 한국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대봉 부총재 연봉

원로의장 진성 원로부의를장 무학

원로위원 동명, 현공, 석문

중앙총회의장 무유

중앙총회의원 지오, 지연, 진묘

Table with 6 columns and 4 rows listing various positions and names: 사정원장 화암, 호법원장 대정, 교육원장 탄오, 포교원장 부처, 총무부장 법하, 기획실장 경오, 재무부장 도연, 교무부장 무상, 사회부장 법성, 문화부장 대각, 감찰부장 호유, 호법부장 대산, 포교부장 진광, 비구니회장 선정, 비구니부회장 법진, 교무국장 보인, 사무장 이소영, 사무국장 김주영, 재무국장 최선영

사)한국불교 조계종 협의회 이사장 이종수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문경 백봉사

謹賀新年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입증안내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 반명함판 사진 4매
• 법당사진 안, 각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
• 승려증 발급 하실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사)한국불교 조계종 협의회 이사장 이종수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문경 백봉사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번지 대표전화 : 1577-1016, 054)571-1030 팩스 : 054)571-7498